

2018년 6월 7일

emerics@kiep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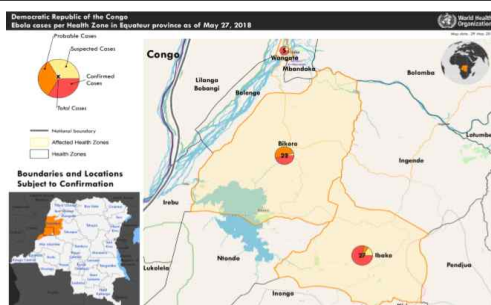
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확산 동향 및 전망



©REUTE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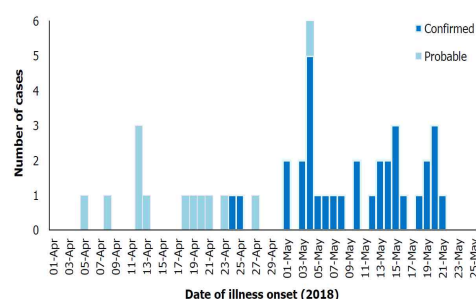
- 세계보건기구(WHO)의 최근 보고서¹에 따르면 2018년 4월 4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래 2018년 최근까지(5월 27일 기준) 54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중 25명이 사망하였음.
-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아프리카 자이르(현 콩고민주공화국)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동안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전염원으로 대표적으로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만 23,406여명이 감염되고 9,467명이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 있음.²
 - 에볼라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출혈열은 아직까지 안전하고 검증된 백신과 치료제³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아 2014년 서아프리카 유행 당시에도 아프리카 대륙 외로 확산될 가능성을 두고 전 세계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 바 있음.
- 이번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는 현재까지 최초 발생지역내의 감염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나 향후 수도 킌사사 등 도시지역으로 확산될 시 지난 서아프리카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음.

그림 1.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발생지역



자료: WHO, 2018, EBOLA VIRUS DISEASE-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, External Situation Report 6

그림 2. 에볼라 감염(의심, 확진) 날짜별 추이



자료: WHO, 2018, EBOLA VIRUS DISEASE-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, External Situation Report 6

1) EBOLA VIRUS DISEASE-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, External Situation Report 6(2018.5.29)

2) WHO, 2015, Situation summary Latest available situation summary

3) 현재 치료제로 ZMapp 등이 있고 rVSVΔG-ZEBOV-GP 등과 같은 시험백신이 존재하나 아직 효과 및 안정성이 불분명한 상황임.

- WHO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5명의 감염사례가 보고된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여객 운송이 활발한 wangata 지역의 확산방지노력이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됨.
 - WHO는 2018.5.15 동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7월까지 1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상황보고서에서는 최대 300명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.
-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 보건당국은 WHO의 지원으로 시험백신의 사용을 공식 승인하였으며 이미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00여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발표하였음.
 - 또한 보건당국은 5월 29일 수도 킌샤사로 들어가는 모든 여객선의 체온검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.
 - 하지만 이미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는 감염환자가 병원을 탈출하여 교회에 출입한바 있고 여전히 지역 시장에서 원숭이 고기 등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등 당국의 방역노력에 허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- 에볼라 바이러스의 주기적인 확산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확산 초기인 현재 콩고 민주 공화국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주변국들과의 국제적인 공조가 요구되고 있음.
 - 서아프리카 사태당시에도 초기 대상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주변국들의 국경 및 공항 폐쇄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정부기능 마비사태를 촉발하였다는 평가가 존재함.
 - 콩고 민주 공화국의 에볼라 확산을 방지를 위해 현재 의료종사자들 중심으로 접종되고 있는 시험백신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확산추이에 따라 지역봉쇄 및 국가 비상상태 선포 등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.
 - 다만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는 그동안 주기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왔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방역경험이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적되어 있음.
 - 또한 WHO의 에볼라 확산방지 네트워크와 공중보고센터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사태가 과거 서아프리카 사태와 같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존재함.
 -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원의 창궐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발생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을 넘어 지역 공동체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
 - 이미 서아프리카 사태 당시 규모와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(ECOWAS)차원의 구제금융이 집행된 사례가 있음. **EMERiCs**

(작성: 장종문 전문연구원 /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)